



Global Partners. 이 영대, 전 애림 선교사 (Brazil).

'22년 09월

미주본부 : 1-714-774-9191, 미국 연락 : 제 번호 1-213-393-1133

Brazil 연락 : 11-55-11-2338-8172(집), 9-7394-35349(핸드폰)

E-mail: ydleeabrako@gmail.com

*제일 밑에 '브라질, Kairos 선교회 '선교 훈련원 방문 기록'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2번 있는 정시 기도 시간에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동안 3 교회 (상파울 선교 교회-시무 장로로 섬긴 교회,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시무 장로로 섬긴 교회), 상파울 Agua Viva 교회-브라질과 아프리카를 위해 제자 훈련사역에 함께 하는 교회)만 위해 기도했지만, 한국 교회, 모든 해외 이민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10% 미만이면 '미 전도 종족'으로 선교계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가 두려워하는 일(잠 10:24)이 한국 교회에 닥칠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를 '선교 지향적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 제목들인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섬기는 교회, 선교 부흥을 위해 예산 위원, 당회원들에게 매년 결산의 5% 씩이라도 새해 예산 편성에 배정할 수 있게 해 주소서.
2. 교회 지도자들이 2세 부흥을 위해 예산 편성에 헌금이 증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3.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 선포에 기도와 묵상으로 깨닫지 못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온 교회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해 주소서.

기도 제목을 드리 오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frica, MK 어린이들이 자라난 후, 신학교에 입학 하는 자들이 많게 하시고, 이들이 신학교 졸업 후,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사역에 은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상파울 신학교(이름: Instituto Biblico Abrako)가 다시 개설되어 지난 9월 첫 주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4명 신학생이 등록해 수업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도 있었지만, 젊은이들이 소속한 교단이 설립한 신학교에 가기 때문에 부득이 중단했는데, 교단에 가입하지 않은(교단에 가입하면 교회 재산이 교단 소유가 되기 때문) 교회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상파울 시내, Pirituba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개설되었고, 브라질 목사님이 학장으로 허락해 주셨고, 강사들까지 섭외가 되었는데 열매가 있게 기도해 주시고, 재정도 허락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frika, MK 학교 건축은 '약. 80 % 단계'인데, 건축 감독은 약 2~3만불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는 7만불이 더 필요하다는데 재정이 충족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완공 후, 건물 뒤편에 있는 땅, (35M X60 M=2,100평방미터)에 담장을 쌓고 흙으로 메워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장을 비롯해 주차장 등을 위해 무기철을 준비하게 해 주시고, 현지 정부 관리들이 부정 부패(공사 감독을 위해 파견된 관리가 뇌물을 요청함)가 없고, MK 어린이가 국가에 기둥이 되는 인재로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파울 신학교 재학생 2명이 Africa 선교의 꿈이 있어 현지까지 방문했지만, 일하는 병원에 메여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데, 파송 교회 기도, 지원아래 조속히 출발해 필요한 언어 학교, 성인 학교가

다시 개강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이 2학교가 개설되어 약 70여명이 등록하여 복음 전도의 문화가 열리는 감사가 있었지만, 담당자가 건강이 허락되지 못해 브라질로 귀국한 후, 중단되고 있는데, 완공된 신학교 교실들을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1명(간호대학 졸업)은 Senegal 보건소, 혹은 Bissau 국립 병원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Africa, 신학교(S.T.A.) 학장, Antónia 목사는 사모가 합의 이혼을 신청했지만, 재판관은 이혼할 이유가 없으면서 생각할 시간을 필요하다면서 재판 날짜를 연기했는데, Kairos 선교회 대표도 이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지도록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Antónia 목사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현지에 귀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이전처럼 신학생 숫자도 증가시킬 수 있는 지혜, 능력을 허락되면서, 현지 정부에 **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고, 신학과, 교육과가 개설되어** 신학생들과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로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www.abrako.com)

[기도 제목]

- 1)다시 개설된 상파울 신학교에 ‘하나님의 나라 인재들’을 많이 세워 주소서.
- 2)선교사로 헌신하려는 Ana, Erika 에게 필요한 지혜, 능력을 허락해 주소서.
- 3)Africa의 MK 학교, Academia Abrko의 건축 공사가 완공까지 필요한 재정을 허락해 주소서.
- 4)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고, 코로나, 오미크론 질병도 빨리 없어지게 하소서
- 5)후원 교회, 후원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소서. **(아래 사진 있음)**

***‘선교 훈련원 방문 기록’**

브라질 교회는 현재, 3대 선교회가 조직되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Kairos 선교회가 개최한 ‘선교사 훈련’ ‘수료 예배’에 참석한 ‘참관기’를 보고합니다. 브라질 교회가 ‘해외 선교’에 정성과 힘을 다하여 보다 많은 선교사가 파송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8개월간 훈련원에서 숙식을 한 37명 청년들이 수료 예배를 드렸는데, Mexico를 비롯해 남미 여러 국가에서 등록한 자들이었는데 축하하려고 방문한 200여명 교우들이 참석한 예배에서 Kairos 선교회장, João 목사의 사회로 찬양, 기도, 말씀을 선포한 후, 선배 선교사들의 경험, 간증이 있는 후, 축하객들이 ‘중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순서가 진행되었는데 오전 08:00에 시작된 ‘수료 예배’가 오후 17:00 정도가 되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Kairos 선교회는 186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회인데, 감사한 것은 브라질 교회 숫자가 5년 전, 25만개 교회가 이제는 35만개 교회로 증가 된 것, 기도할 것은 5년 전에는 해외 파송 선교사 숫자가 4,800여명 이었지만, 지금은 4,000여명으로 감소된 것인데 이유는 교회의 재정 부족으로 생활비가 없어 귀국했기 때문인데, 교회 재정이 충족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완공된 신학교 건물 모습,



Bissau, MK 학교 건축, 현재 모습.

